

“한국의 무도정신 제대로 배워 갑니다”

구미1대학·스페인합기도 무도 세미나 수료식
(사)스페인합기도협회 회원 15명 교류 방문



“합기도의 본고장, 대한민국의 무도정신을 제대로 배워 갑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구미1대학이 최근 해외 단체와의 스포츠교류를 통해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높여가고 있다. 구미1대학은 지난 10일 스페인합기도 무도·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스페인합기도협회(회장 조두형·사진) 회원 15명이 내방해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2009년 양 기관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교류행사를 가진 이후, 올해로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조두형 스페인합기도협회장과 회원들은 지난 달 31일 한국에 입국해 이

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구미1대학 경호스포츠과(학과장 김기수) 학생들과 무도 수련 및 문화유적지 탐방 행사 등을 가졌다.

스페인 현지 경찰에서부터 의사, 공무원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합기도의 본고장인 한국의 전통 무예와 무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득하는 수련 행사를 가졌다.

3년째 교류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조두형 스페인합기도협회장은 “구미1대학과 3년 전,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양 기관의 친선행사를 갖고 있다. 무예인으로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30여

년을 생활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정창주 총장님과 경호스포츠학과 교수 및 재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창주 구미1대학 총장은 수료식 인사말에서 “비쁜 일정에도 대학을 방문해 주신 스페인합기도협회 조두형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본인 또한 합기도를 연마(공인 8단)한 무도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많이 보고 배우고 가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합기도협회 회원들은 지난 6일~7일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경주국립공원, 해운대 등 지역의 전통 사찰과 유원지 등을 둘러보고 11일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스페인합기도협회, '무도 세미나' 참석



스페인합기도협회(회장 조두형)가 지난 8월 1일(월)부터 10일(수)까지 10일간 구미1대학에서 열린 『제1회 무도 세미나』에 참가했다.

올 1월과 5월, 구미1대학 경호스포츠과 학생들이 스페

인 알바세메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국제 합기도 대회』에 참가한 적은 있으나, 스페인합기도협회가 구미1대학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 관계자 15명이 참가

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합기도 술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무예를 소개하고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또 협회 관계자들은 세미나 참석뿐 아니라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구미1대학 정창주 총장은 스페인합기도협회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경호스포츠학과 학생들의 사범과견과 교환학생제도 등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구마=김승 기자

한국 합기도, 스페인을 한 수 가르치다



합기도시범단이 스페인에서 대한민국 합기도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 정통합기도 경북협회(회장 김정수)와 구미1대학 시범단은 지난 5월 7일 스페인 알바세페 시립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3회 스페인 국제합기도시범대회(이하 스페인시범대회)』에서 고난도 술기를 선보여 현지인들의 큰 갈채를 받으며 한국합기도의 위용을 뽐냈다.

이번 스페인시범대회는 스페인 기도회 합기도협회가 주최하고 스페인 국립암 퇴치협회와 알바세페시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대회가 열린 알바세페 시립체육관에는 약 2,000명의 유료관객이 입장해 대성황을 이뤘고, 현지 5개 방송국과 4개 언론이 시범단을 집중취재했다. 이 대회의 수익금 전액은 스페인 국립암 퇴치협회에 기부됐다.

스페인합기도협회 조두형 회장의 초청으로 스페인을 방문한 합기도시범단은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 스페인

에 머물며 유단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시범단의 방문은 지난 1월 스페인 전역의 합기도협회를 30일간 순회방문한 이래 올해만도 2회째의 방문이었다.

시범단을 이끈 김승 교수(구미1대학 경호스포츠학과)는 “지난 2011년 1월에 구미1대학 경호스포츠학과 글로벌 학습단을 이끌고 스페인내 4개 도시를 직접 방문해 향후 졸업생들의 스페인 진출을 위한 현장 확인을 해왔다. 이번 시범단 방문도 스페인 협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뤄진 행사였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그 길이 넓어지고 구체화 됐다”고 자평했다. 스페인합기도협회 조두형 회장과 김승 교수는 지난 7년 동안 매년 스페인과 한국을 서로 방문해 왔다. 오는 8월에도 스페인 합기도협회 지부장 및 사범 20명이 한국을 방문해 합기도교육 및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